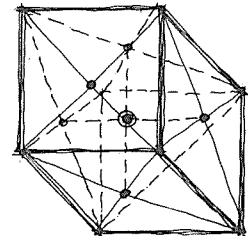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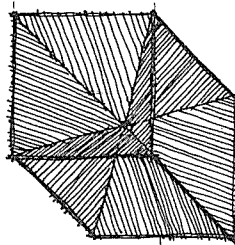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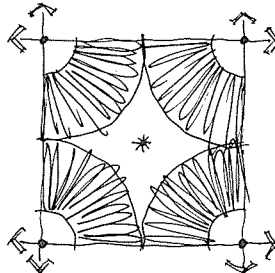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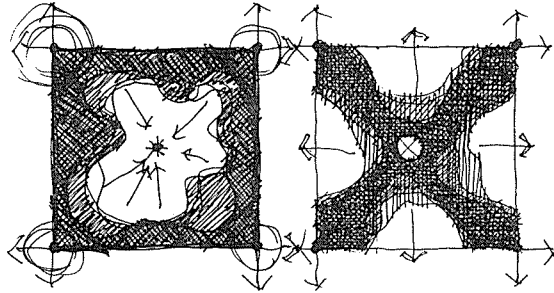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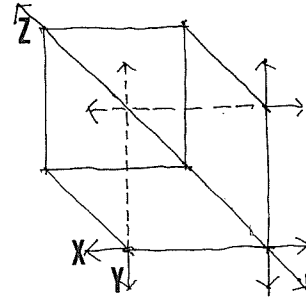


# '86 신건축 주택설계경기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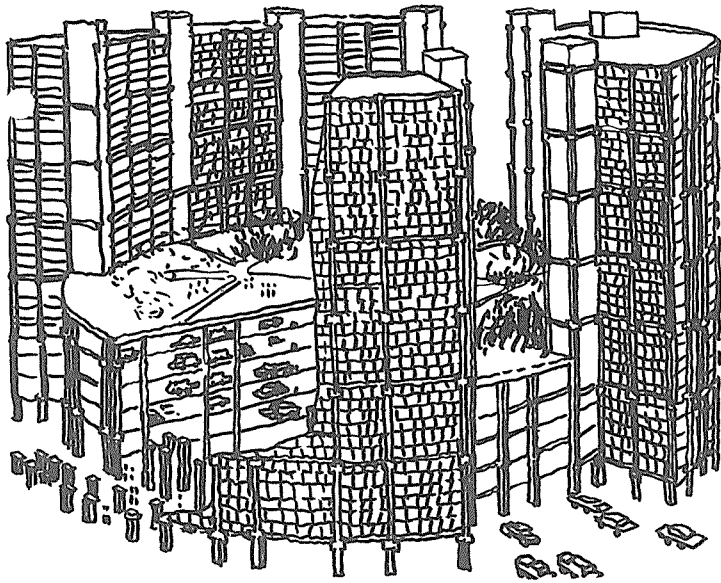
지난해 일본의 신건축사에서 실시한 설계경기에서는 '300/300/300'이라는 주제로 입방체 안에 주거의 새로운 형태를 창안하는 프로젝트를 공모하여 총 207점이 응모된 가운데 심사결과 1, 2등 각 3점, 3등 2점, 가작 7점이 선정되었다. 그중 한국의 동정근+박연심안이 2등으로 당선되었다. 본지에서는 그 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인(모더니스트)이라면 보다 개선된 생활조건에 의해서 생활과 사회와 기술의 향상을 믿어야만 한다. 종래의 기능주의 모더니즘은 이런 포션의 비대칭의 결과다. 최근에는 건축과 기능과 구조 형태의 관계 및 예술과 기술과의 탐구에 의해서 추상적 표현주의라는 새로운 통합을 지향하는 방법론이 제시되게 되었다. 심사위원인 헬무트 얀은 자칭 '로만틱하이테크'로서 추상주의예술과 기술이 합쳐진 합리적 명세 속에서 전통적 모더니즘 위에 특유한 상징적이고도 로만틱한 면에 관심을 기울이는

작가다. 그는 이시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를 일종의 역사의 停滯로 본다. 그리고 기술적인 힘이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그래서 사회적 창조성과 결부될 수 있어야 진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고 믿는다. 도시문화의 집중은 도시생활에 발생하는 거주환경을 매우 복합적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거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사적 제안이 있을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은 도시생활에서 날로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문화에서는 날로 그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오늘날의 도시문화에서는

동정근+박연심  
환경건축+정원건축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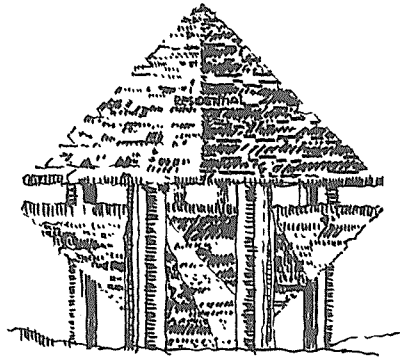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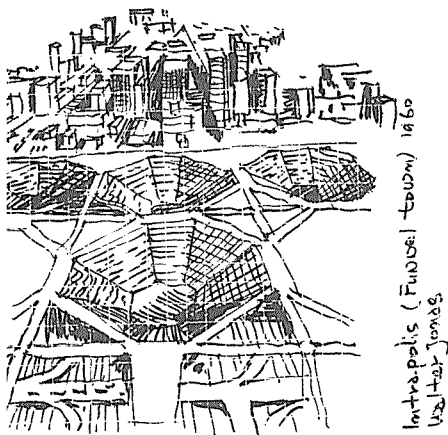
Plan for the Center of Philadelphia, Philadelphia Pennsylvania 1956-1962

성형은 지적인 인식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다. 인도의 만다라(Mandala)의 상징은 원형테두리의 무한한 흐름이며 둘러싸인 공간의 유한 질서를 역설적으로 결합하며 그것은 조화의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원과 대조적으로 각형은 완전한 형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단계로 보아야만 할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도 사원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같이 안정되고 정지된 각형은 바탕인 지면이 있는 한 완전한 형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기하학은 우주 속에 내던져져 고립시킬 때 원형의 형태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기하학적인 형태의 기본은 보편적 단순한 목표에 의한 것이며 변화를 강요하는 사회적 자연환경적 요구로부터 논리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로버트 오웬의 사회개량을 통한 마을 계획에서 사각형의 디자인 기본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면에 제레미 벤츠는 원형을 즐겨 사용하고 있다. 또한 파울로 솔레리의 신고전주의 전통 개념에 의한 아콜로지(Arcology)에서 생태학과 결부하여 Arcube, Hexahedron Comparative Arcology 등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월터 요나스의 내향도시(内向都市), 루이스칸의 필라델피아 계획안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모든 형태는 그 형태가 갖고 있는 내제된 힘이 있으며 그 힘은 한 점으로 집중되어 있어 중심점을 형성하고 있다. 그 내제된 중심점에서부터 외곽으로 연결되는 힘의 분포는 그 형태를 지지하는 구조가 되며 각각의 외곽에서 중심으로 흐르는 힘들은 중심점에서 만나 서로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며 그 구조는 가장 순수한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또한 가장 강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순수성과 집합의 개념과의 만남에서 개념의 직선적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순수성과 형태의 완결성은 독립된 소유주를 상징하게 된다. 큐빅에 대한 심사위원의 해석은 삼차원과 결구되는 좌표를 설정했는데 그것은 즉 형태 / 구조 / 미학일 수 있고 強, 用, 美라고 해석하며 'less is a bore/less is more/more is a bore'라고 정의한다.



Hexahedron - Arcology Paolo Soleri

그 생활환경을 설계할 때, 알게 모르게 큐빅한 입방체의 보이지 않는 공간 구분의 한계 속에서 범위를 갖게 된다. 그 한계 속에 완벽한 표현자유를 보장 받을 수는 없는 것인가. '300/300/300'이라는 과제는 그 도심 속에 만들어내는 보이지 않는 틀로서 어쩔 수 없는 슈퍼큐빅 개념속에 인간의 미래 주거환경을 예측해 보는 것이다. 어프로치는 물론 현실이 갖는 상황과 거주밀도와 있을 수 있는 제반 법규와 통문제, 현대기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주거의 의미론에서 변할 수 없는 인간과 자연과의 공시성 공생관계,

휴식의 장소, 안전한 장소, 자기만의 소유주를 소유한다는 절대적 내부 중심론적 존재조건인 것이다. 노아(Noahs)의 방주나 바벨(Babels) 탑에서 보여주는 영원한 피난처 혹은 영원한 요람을 찾기 위한 꿈은 사회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그 뜻은 상상의 형태로 혹은 공상적 사상으로 나타나 왔고 산업혁명 이후 도시화가 필요 하면서 현실적 문제로 이상도시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이상도시의 바람은 정연한 기하학의 패턴, 즉 원이나 4각형에 의해 특징되고 있으며 이런 도형에 대한